



광주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 교육 공동체인 '화월주'의 지원을 받아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는 '어색한밴드'가 지난 23일 나우리지역아동센터 연습실에서 환하게 웃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가희(이하 광주서초등학교 4년)·김용선(5년)·김여원(4년)·윤정아(5년)·홍유빈(5년)·김서현(5년)·이초희(4년)·박성혁(5년)·정주영(4년).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설 2800만 민족 대이동

설 당일 제외 연휴기간 눈·비·귀성·귀경길 주의

설(31일)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설은 연휴기간이 주말·휴일과 겹치는데 설 당일엔 제외된 연휴기간엔 눈·비가 예보돼 귀성·귀경길에 큰 불편이 예상된다. 28일 한국도로공사 전남본부에 따르면 29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귀성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며, 이날 하루에만 26만2000대의 귀성 차량이 호남고속도로와 서해안 고속도로를 통해 광주·전남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설 연휴 특별교통대책기간인 5일간 광주·동광주·동광산·전주·순천·목포 등 호남지역 주요 영업소 귀성·귀경길 예상 교통량은 263만대(귀성 131만1000대·귀경 131만9000대)로 예상된다. 호남권 전지역 하루평균 예상 교통량은 지난해 설(24만대)보다 7.8% 증가한 26만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승용차를 기준으로 ▲서울→광주 귀성은 6시간50분, 서서울→목포 8시간10분 ▲광주→서울 귀경은 5시간30분, 서서울→목포 6시간50분이 각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버스 전용차로를 이용할 경우는 승용차보다 1~2시간 가량 단축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귀성차량은 29일 오후부터 설 하루 전날인 30일 오전에 집중되고, 귀경차량은 설날인 31일 오후에 몰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귀성길 혼잡 예상 구간은 ▲호남선 삼례~김제(19km)·산월~동광주(9km) 등이며, 귀경길엔 ▲호남선 김제~익산(26km)·용봉~광주(12km)와 서해안선 서김제~동군산(12km) 구간이 가장 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5일간 전국적으로 2769만명(하루 평균 554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종형기자 golee@

대학입학정원 2023년까지 16만명 감축

대학구조개혁계획 발표

대학 입학정원이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4만명 감축되는 등 2023년까지 총 16만명이 줄어들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6면> 이번 구조개혁의 핵심은 3단계에 걸쳐 총 16만명을 줄이는 입학정원 감축이다. 오는 2022년까지 3주기 나눈 주마다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평가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모든 등급에 대해 차등적으로 정원을 줄이게 된다. 정원 감축 규모는 향후 10년간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 수가 입학정원보다 16만명 가량 적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회 연속 '매우 미흡' 등급을 받는 대학은 퇴출된다. /연합뉴스

교육·복지·일자리... 마을공동체가 희망이다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따뜻한 안부를 묻고, 힘을 모아 역경을 헤쳐나갔던 우리 민족 특유의 '마을공동체'가 되살아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가난한 시절 함께 농사를 짓고, 어려운 사람을 위해 쌀을 모았던 '훈훈한 정'을 느낄 수 있는 광주·전남의 이색 마을공동체가 각박해져 가는 우리 사회에 희망을 던져 주고 있다.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 민간단체와 병원, 상점 주인 등이 모여 교육네트워크를 만들고 노인들의 복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귀농 젊은이들이 나서는 등 마을공동체가 복지의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육네트워크·영농조합...
광주·전남 결성 잇따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사회 안전망 역할 '특목'

마을공동체는 산업화로 극심한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전남지역에도 활기를 불어 넣고 있으며, 정부에서 일일이 챙길 수 없는 도시 빈민과 노인들의 든든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숨을 거둔지 며칠 만에 발견

되는 고독사가 언론을 장식하는 요즘, 마을공동체는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를 메우는 '복지의 말초신경' 역할을 하고 있다. 과거 정부와 지자체 주도로 만들어진 마을공동체가 많았지만 최근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마을공동체는 자발적으로 구성돼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 화정동, 월산동, 주월동 아이들을 위한 지역교육네트워크 '화월주'는 주민들이 모여 마을의 교육을 논의하고 실천하는 공동체다. 마을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주민들이 직접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때문에 효과도 좋다. 또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을 받은 아이들이 다른 아이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고 있다. 일손이 필요할 때 서로 돕던 우리 민족의 '두레'처럼, 봉사하고 나눔이 퍼져 나갈 수 있는 자발적인 복지 체계를 완성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화월주'는 더 작은 단위의 마을공동체로 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 7

개 권역으로 공동체를 세분화해 지역 특성에 맞는 개별 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되고 있다. 가령, 마을에 따라 아이들의 성장에 해로운 환경을 찾아 개선하고 청소년 폭력 문제가 우려되는 지역은 관련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식이다. 마을공동체의 활약은 인구 감소와 극심한 고령화 현상을 빚고 있는 전남지역에도 새로운 사회 모델이 되고 있다. 귀농한 선배들이 만든 영광군 묘량면 '영광리 여민동락'(興民同樂)은 노인복지와 일자리 창출, 어린이 교육 등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여민동락 공동체' 복지법인을 설립한 데 이어 노인복지센터, 동라차집, 동라점점, 여민동락 할매손 모시잇송편 떡국장을 잇따라 개설해 운영 중이다. 장성 북이면 자라외마을도 공동체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이곳은 10여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형성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꾸미고 있다. 마을공동체 법인을 만들어 민들레를 활용한 건강 보조 식품을 판매하고 있고, 지난해 대한민국 농

촌마을대상에서 대통령상을 받기도 했다. 일종의 한옥 집성촌인 전남의 '행복마을'도 마을공동체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전남지역 42개 행복마을 395가구가 마을별로 힘을 합쳐 민박과 지역특산물 판매를 통해 지난해 25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일부 마을공동체에서는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는 다 문화가정을 위한 한옥체험, 어린이 아토피 치료 등을 위한 봉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또 전북 정읍의 내장상동은 내장산속모시영농조합을 만들어 수익금의 일부로 마을의 80세 이상 노인에게 매달 10만원씩 고령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오영록·김용희기자 kroh@

즐거운 설 명절 보내십시오
光州日報 임직원 일동

연휴날씨	29일(수) 비 -5/13℃	30일(목) 비 6/10℃	31일(금) 구름많음 0/10℃	1일(토) 비 6/13℃	2일(일) 비 7/11℃
------	-----------------------	----------------------	-------------------------	---------------------	---------------------

학교설립 60주년 (1954~2014)
60년 전통의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설 특집 지면 안내

지방선거 입지자... 4·5면	연휴 가볼만한 곳... 14면
광주를 걷다... 9면	완도 해조류박람회... 15면
설연휴 생활정보... 10면	설연휴 극장가... 16면
세시풍속·문화공연... 12면	TV 프로그램... 17~19면

9면~20면 속 빼서 보세요

설 연휴 30~2월 2일 신문 쉽니다

문화성 행복한 대한민국
매달 마지막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씩은 다 함께 문화를 느끼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전국의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할인관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화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직영관, 서울극장, 대한극장, 전주시네마 등 전국 주요 영화관 ·저녁 6~8시에 상영을 시작하는 영화 1회분 관람료 8천 원에서 5천 원으로 할인
스포츠	·프로 농구와 배구 경기장에 자녀(초등학생 이하)와 부모가 동반 입장 시 반값 현장 할인
공연장	·국립극장, 국립국악원, 포항시립중앙아트홀 무료 ·예술의 전당, 정동극장, 한국공연예술센터 공연 할인
전시시설	·국공립 미술관·박물관·과학관 및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소속 미술관 95개, 70개 사립박물관 무료·할인
문화재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덕수궁, 종묘, 조선왕릉(14개), 제주 목관아, 제주 삼양동 유적지 무료 개방
도서관	·전국 국공립 도서관 야간개방과 인문학 특강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운영

문화가 있는 날

문화융성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